

# 기독교학문의 지메이예로서의 실천적 동기

월터스토프의 논지를 중심으로)

정세열

(매일경제신문 / 경제학)

## 논문 초록

학문의 실천적 동기는 연구과제의 선택과 학문의 과정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월터스토프의 논지를 중심으로 기독교학문의 실천적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신칼빈주의가 사회분화와 사회 각 영역의 규범을 밝히는데 주력한 나머지 실천적 동기를 상실하고 모더니즘의 한계를 노출하여, 실재하는 압제와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인류를 섬기지 못한 것을 비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학문의 실천적 동기로서 정의와 평강의 공존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회적 헌신'은 성경의 핵심적 사상과 일치할 뿐 아니라 실천지향적인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 주제어: 월터스토프, 신칼빈주의, 실천적 동기, 기독교 학문

- I. 서론
- II. 월터스토프의 신칼빈주의 세계관 비판과 대안
- III. 월터스토프의 논지에 대한 일고: 시사점
- V. 결어

## I. 서론

학문을 하는 근본 동기와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학문 활동을 천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관련 논쟁은 학계 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 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은 기독교 학문과 학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본 노트는 기독교학문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그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에서 화란의 도이어베르트(Dooyeweerd, Herman)를 중심으로 20세기 초중반에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두된 신칼빈주의(neo-Calvinism)<sup>2)</sup> 동기와 성격에 대한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비판과 그가 제시한 대안을 간략하게 소개·검토하고자 한다.<sup>3)</sup> 본 노트는 신칼빈주의가 칼빈주의 세계관의 전통인 ‘실천적 동기’를 잃고 도리어 ‘모더니즘’과 상통한다는 월터스토프의 지적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독교학문의 지배동기로서의 ‘정의와

2) 신칼빈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에 대해서는 Kalsbeek (1975)에 B. Zylstra가 쓴 “Introduction”을 참조.

3) 월터스토프는 철학자이나 미학, 교육학 분야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독할만한 저서를 남겼다.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종교 철학자이자 기독교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평강의 공존의 의미를 짚어 본다.

월터스토프 역시 화란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철학자라는 점에서 그의 논지는 비록 20년이 넘은 것이지만<sup>4)</sup> 여전히 귀담아 들을만하며 새로운 세계화·지식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의 논지는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야 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조명해 본다는 점에서도 검토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 II. 월터스토프의 신칼빈주의 세계관 비판과 대안

16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뱅(Calvin, Jean)의 이름을 좇아 오늘날 이른바 ‘칼빈주의’라 불리는 신학체계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와 사회, 국제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계관까지 제시한다.<sup>5)</sup>

칼빈주의 세계관은 화란에서 19세기 말에 새롭게 꽃을 피웠다. 정교분리, 정부의 역할과 한계 등 사회 각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시각이 세계관의 학 핵심을 이루어 왔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해답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19세기 중후반에 바로 화란에서 카이퍼(Abraham Kuyper)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불가침한 고유의 규범이 있다는 이른바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 이론이 더욱 꽃피게 되었다.<sup>6)</sup>

4) 필자가 알기로는 20세기 신칼빈주의에 대한 월터스토프의 비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기독교 식자층에 소개되지 않았다.

5) 개론서로서 고전으로는 Meeter(1967)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개혁주의 세계관은 20세기에 들어 화란의 법학자인 도이어베르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칼빈주의(neo-Calvinism)로 다시금 계승·발전됐다. 이 과정에서 신칼빈주의는 기독교학문으로서 인식론을 포함한 철학적 기반과 더욱 정치한 사상체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제반 사회·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sup>7)</sup> 이 같은 신칼빈주의의 업적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찬사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sup>8)</sup>

### 1. 신칼빈주의의 성격 변화: 실천적 동기의 결여

윌터스토프는 약 20년 전에 발간한 저서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에서 신칼빈주의에 대해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비판을 가한다. 그도 신칼빈주의가 모든 사상과 사회·경제발전의 종교적 근인(根因)을 심도있게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칼빈주의가 칼빈주의 세계관이 전통적으로 지녀 왔던 ‘실천적 동기’를 잃게 됐다는 점을 윌터스토프는 지적하고 있다.<sup>9)</sup> 그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변혁기를 맞고 있던 유럽의 19세기 중후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sup>10)</sup> 일반 대중과 시민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자 하

6) Kypser(1943)는 19세기 후반에 발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잘 나타낸 교전으로 꼽힌다. 그는 기독교세계관을 심도 있고 명쾌하게 제시하며 동시에 ‘영역주권’이 어떻게 학문, 예술 등의 문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7) Kalsbeek(1975)은 도이어베르트의 사상체계의 대표적 입문서이다.

8) 도이어베르트의 철학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강영안(2001)을 참조.

9) 이러한 지적은 신칼빈주의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것으로 신칼빈주의자들이 사회정의나 빈곤 문제와 관련해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 역사적으로 19세기 중후반 유럽은 19세기 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필두로 유럽사회에 새로운 경제체제로 자리잡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18세기말 불란서혁명에 이어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사회가 전반을 휩쓸어던 정치혁명을 거치면서 여전히 19세기 중후반에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에 휩쓸려 있었다. 19세기 유럽의 상황에 대한 소개로는 19세기 유럽사의 권위자자인 Hobsbawm (1962, 1983, 1989)의 삼부작을 참고.

는 실천적 동기는 19세기 말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칼빈주의 세계관의 한 핵심인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이<sup>11)</sup>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적용·확산되는 과정에서 계승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고통에 직접 귀 기울이던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적 동기와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열정은 신칼빈주의를 철학적 사상체계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월터스토프의 진단이다. 그는 카이퍼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화란 개혁주의가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바른 동기와 열정(passion)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칼빈주의와 같이 좀더 정치화된 이론체계를 가지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신칼빈주의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회 영역의 규범 혹은 기준(norm)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게 됨에 따라 칼빈주의 전통이 지녀왔던 억압받는 자, 고통 받는 자에 대한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열정과 자세를 학문 활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기독교학문과 세계관의 실천적 동기를 잃었다는 것이다.

사회 각 영역에 대한 규범을 밝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류를 섬길 수 있느냐가 기독교학문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임을 월터스토프는 상기시킨다.<sup>12)</sup>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의 규범에 비추어 국가기능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보다는 국가기능이 인류를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 영역주권은 정교분리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출발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분명히 그 활동 영역과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교회와 가족은 물론 교육 등에 대해 불필요하게 간섭할 수 없다는 견해가 영역주권의 근간을 이룬다. '영역주권' 개념의 이해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Meeter(1967, Ch. XIV)를 참조.

12) 인류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학문의 기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바로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 성경의 핵심 메시안 Walterstorff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논의된다.

---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진 의무는 국가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를 포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인류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도이어베르트는 국가의 임무는 정의를 집행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하고 우체국을 운영하며 소방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은 도이어베르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정의 집행 기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국가가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마도 우리 상황에서는 정의를 집행하는 (국가와 같은) 기관에 의해 이 같은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이 최상의 것일 수 있다. 다른 제도의 틀 속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체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도 국가의 고유한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인간의 삶이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필자 역)

--- We do not owe it to God to realize the inner nature of the State; rather, we owe it to God that our own institutional array, including our state, serves humanity.

Dooyenweerd argues that the task of the State i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y own government, and most others in the world as well, provides certain services that enhance our life together: it builds roads, runs a post office, offers fire protection, and so on. This is no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Dooyenweerd understands it; nonetheless, it is important that these functions be performed, and perhaps it is best in our situation that these functions be performed by the same institution that administers justice. In another institutional array, it might not be wise, but that case would have to be argued not by reference to the inner nature of the State, but by reference to the lives of human beings. (Wolterstorff, 1981: 63)

## 2. '모더니즘' 으로서의 실칼빈주의

신칼빈주의가 기독교학문으로서의 실천적 성격을 결여한 채 사회분화와 각 사회영역의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월터스토프의 지적은 신칼빈주의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비판은 월터스토프가 현대 경제사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는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현과 그 특성에 대한 인식이 현대 기독교 세계관 확립과 기독교학문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sup>13)</sup>

월터스토프도 신칼빈주의가 세계체제 혹은 근대세계관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인간의 독립성과 이성을 엔진으로 하는 경제성장 추구는 새로운 이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통찰력있게 파헤쳤다고 평가한다.<sup>14)</sup>

월터스토프에 따르면 신칼빈주의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자본주의 이상화의 희생자라는 시각을 견지한다. 따라서 제반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성장지상주의라는 이상을 제거하고 대신 창조질서에 비추어 각 사회 영역의 분화와 함께 그 규범을 밝혀내고 실현하는 데서 찾는다.

--- 인류의 소명은 창조 속에 보관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 도이어베르트 해답의 출발은 분화가 역사의 규범이라는 것이다. 문화활동과 그로 인한 역사 자체는 분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필자 역)

--- *It is the calling of humanity to bring to realization the*

13)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Wolterstorff (1981, ch 2) 참조

14) 대표적으로 신칼빈주의 기초를 가지고 이 같은 분석을 한 Gouzwaard (1981)는 해방신학과 함께 Wolterstorff가 자신의 논지 전개에 있어 중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potentials stored in creation. --- The beginning of Dooyeweerd's answer is that differentiation is the norm for history. Cultural activity, and thereby history itself, ought to mov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differentiation. (Wolterstorff, 1981: 56)*

이 같은 윌터스토프의 지적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바로 신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기초이다.

비록 인간 사회는 때때로 매우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구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처럼 분화된 사회에서는 국가, 교회, 가족, 클럽, 기업 등과 같은 사회조직 형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우주적 규범철학'<sup>15)</sup> 사회의 구조원리는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변치 않는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주의를 견지하는 사회 학자들은 이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역사주의는 문화적 가치와 사회제도는 주로 순수한 역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는 20세기 사회학의 이론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필자 역)

*Although at times human society may seem to be chaotic, it is in fact highly structured; for in a differentiated society like ours we can distinguish such societal forms as states, churches, families, clubs, business enterprises, and so forth. --- For instance, the 'Philosophy of Cosmomic Idea' holds that there are societal structural principles of a normative character which are not subject to historical development. However, sociologists who hold to historicism cannot accept this. Historicism argues that cultural values and social institutions are mainly the product of purely historical factors. This view has greatly influenced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soci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Kalsbeek, 1975: 196)*

과연 이 같은 신칼빈주의의 사회구조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른 것인가

15) 도이어베르트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칼빈주의 사상체계를 지칭한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역사불변적 사회 규범을 밝혀내 사회 각 영역의 분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자 기독교학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월터스토프(Walterstorff, 1981)는 이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칼빈주의가 역사주의를 수용하는 사회학과는 분명히 다른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함에 따라 각 사회 영역이 갖는 법칙 혹은 규범은 사회분화(social differentiation)를 통해 드러날 수 있고 바로 이 규범을 밝힘으로써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초를 삼고 있다. 따라서 신칼빈주의는 사회학이 수용하는 역사주의를 수용하지 않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바로 웨버(Weber, Marx)와 팔슨스(Parsons, Talcott)의 사회학과 일맥상통하는 “모더니즘(modernism)”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월터스토프의 핵심 논지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신칼빈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평등과 이로 인한 약자의 고통, 빈부의 격차, 가진 자와 부유한 나라의 갖지 못한 자와 빈곤한 나라에 대한 구조적인 억압 등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방신학에 대한 월터스토프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반면 해방신학자들의 분석은 신칼빈주의 분석이 갖는 중요한 결함을 교정하고 있다. 우리 현실은 단순히 우리 모두가 성장이란 우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착취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신칼빈주의는 우리 사회질서의 이 같은 갈등 측면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 따라서 비록 그들이 성장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압제와 착취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힘든 투쟁을 하는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

방이 없는 '문화의 개편'이란 없다.(필자 역)

*On the other hand, the liberationist analysis corrects an important deficiency in the neo-Calvinist analysis: our situation is not merely that we are all dominated by the idol of growth; it is also that certain groups of persons are exploitatively dominated by other groups of persons. The neo-Calvinists scarcely take note of this conflictual aspect of our social order. --- Accordingly, though they suggest strategies for freeing ourselves from the idol of growth, they say nothing about groups of people struggling to liberate themselves from oppression and exploitation. But the truth is surely that there is no disclosure without liberation. (Wolterstorff, 1981: 67)*

그렇다면 월터스토프는 해방신학이나 마르크시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sup>16)</sup> 결코 아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는 자신의 영역 밖의 일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마르크시즘에 크게 영향을 받은 해방신학이 사회, 국제적인 구조적 압제와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사회구원을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월터스토프는 대표적인 해방신학자인 구티에레즈(Gutierrez)가 해방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공동체에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회구원과는 어

16) 월터스토프는 월러스타인(Wallerstein)이 제시한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특성을 수용한 것이나 해방신학의 기저에 깔린 마르크스적 중심국가와 변방국가 간 정치경제적 분석 등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월터스토프의 생각은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더 언급된다.

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해방신학자는 자유(freedom)를 최종상태로 지향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실천적 동기를 상실한 신칼빈주의의 학문적 결함을 극복함과 동시에 해방신학과 같이 개인적인, 사회구조적인, 국제적인 압제와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약을 피하기 위해서 월터스토프는 성경에서 자신의 대안을 찾고 있다.

### 3. 월터스토프의 대안: 기독교학문의 지배동기로서의 정의와 평강의 공존

월터스토프는 바로 '정의와 평강의 공존'-달리 표현하면 정의의 실현을 통한 궁극적 평강-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적대감을 종식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처하는 평강이다. 이 같은 평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은 물론 우리 자신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해석한다.<sup>17)</sup>

그러나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인 평강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정의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점을 월터스토프는 강조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평강의 사회 및 공동체는 윤리적이고 책임을 지는 공동체이지만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이룬다는 점에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이고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실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적대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17)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성격적 근거에 대해서는 Wolterstorff, 1981: 69-72, "Interlude I: Justice in Shalom"를 참조.

--- 만일 노예제 속에서 미국의 모든 흑인들이 만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평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모든 흑인들이 [흑백분리(apartheid) 정책 속에서]<sup>18)</sup> 행복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평강은 윤리적 공동체가 기 때문에 정의가 부재할 때 평강은 상처를 입는다.(필자 역)

--- *Shalom would not have been present even if all the blacks in the United States had been content in their state of slavery; it would not be present in South Africa even if all the blacks there felt happy. It is because shalom is an ethical community that it is wounded when justice is absent.*  
(Wolterstorff, 1981: 71)

이 같은 '정의와 평강의 공존'이 기독교학문의 근본 동기이자 기독교학자의 헌신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월터스토프가 제시하는 기독교와 학문 통합의 요체이다.<sup>19)</sup>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는 '부유와 빈곤', 도시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예시하고 있다(Wolterstorff, 1981). 월터스토프는 빈곤 문제를 전공하는 경제학자도 아니며 도시 관련 전문가도 아니며 국제전문가도 물론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의 신칼빈주의들이 비록 20세기 신칼빈주의들처럼 정치한 이론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바로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란 궁극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 문제와 씨름하는 기독교 학문이 칼빈주의 세계관을 바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월터스토프는 실천적

18) 월터스토프가 이 책을 쓸 당시 남아프리카는 흑백분리정책 하에 있었기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삽입한 것임.

19) 월터스토프는 카이퍼가 사회개혁이라는 실천적 동기를 갖는 기독교학문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지지와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이 점도 기독교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학문으로서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자신을 비교한다.

---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주성이 사회적 이상이였다. 그들의 이상은 지배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는 철저한 해방을 위한 것이였다. 그에 비해서 나의 이상은 불의와 수탈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는 평강을 위한 것이다.(필자역)

--- *For the Frankfurt School, individual autonomy was the social ideal. Theirs was a critique of domination in the service of radical liberation. Mine has been a critique of injustice and deprivation in the service of shalom (Wolterstorff, 1981: 165)*

결론적으로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동기를 기독교 학문의 기초와 궁극적 가치로 삼는 자신과 신칼빈주의의 차이를 월터스토프는 다음과 같이 축약한다.

신칼빈주의 개념 하에서는, 비철학 과학의<sup>20)</sup> 작업 목적(달리 말하면 학자의 이론작업 방향을 지배하는 “이해”)은 좀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건강한 구조를 갖는 사회개혁을 이루는 데에 유용한 이론체계보다는 법칙의 발견을 위한 이론체계 추상적이고 일반화되고 통합된 법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실천지향적 이론가에게는 이론과 실천간의 결정적 연계는 바로 사회적 현상이 학자의 이론작업을 지배하는 이해가 된다. 반면 신칼빈주의자들에게는 결정적 연계는 종교가 학자의 탐구에 지배원리로 작용하는 곳에 놓인다.(필자 역)

*In the neo-Calvinist concept, the goal of scholarly endeavor (that is to say, the “interest” that governs the direction of the scholar’s theorizing) is, for the non-philosophical sciences, to develop a body of nomological theory—a body of laws, abstract, general, integrated—rather than a body of theory useful for the struggle to reform society into more just and healthful*

---

20) 월터스토프가 언급한 ‘비철학적 연구(non-philosophical studies)’에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structures. For the praxis-oriented theorist, as we have seen, the decisive link between theory and praxis lies at the point where social commitment becomes the governing interest of the scholar's theorizing. For the neo-Calvinists, on the other hand, the decisive link occurs at the point where religion functions as the controlling principle of the scholar's inquiries. (Wolterstorff, 1981: 165-66)*

### III. 윌터스토프의 논지에 대한 일고: 시사점

우리 삶과 사회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죄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과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죄에 대한 고려는 본질적인 것이 된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윌터스토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와 같이 신칼빈주의가 모든 사회 영역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종교 혹은 신앙적 뿌리를 추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회가 아무리 분화된다 할지라도 관련 제도나 구조도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분화과정은 물론 분화된 사회·경제 영역 및 조직에서 권위는 물론 힘의 배분과 그 행사와 연관해서 죄의 역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의, 불평등, 압제와 그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와 권력과 경제지배구조와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정한 제도와 관행,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질서와 이성이 과연 얼마나 사회분화를 통해 바로 복원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신칼빈주의의 기본 시각과 인식론에 관한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윌터스토프는 기독교

교 학자가 시대 상황에 맞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써름해야 하느냐 하는가를 예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각 사회영역의 기준을 찾아내는 데에 기독교학문의 성격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동기를 가질 때 연구 주제의 선정은 물론 사회·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에 있어 월터스토프가 강조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사회적 헌신'은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로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뛰어난 이론경제학자이면서도 드물게 윤리학, 정치학, 철학계의 논의를 경제학과 연계시킨 센(Sen, Amartya)도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발전은 바로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 합리적 사회합의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역량, 기능, 선택의 자유에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자유 신장을 위한 '사회적 헌신'이 경제사회발전 연구의 초석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월터스토프가 제시한 성경적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 과연 기독교 학문 작업의 지배동기이자 '사회적 헌신'의 기초로서 정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인 사랑과 정의의 실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진정한 평강도 정의의 실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월터스토프가 성경의 근본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학문에 접합시키려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원하던 원하지 않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정의의 기준을 배제한 채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1)</sup> 이런 이유에서도 구체적인 '사회적 헌신'이 이론 작업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월터스토프의 논지

21) 예를 들어 공리주의와 파레토 최적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경제학은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에게는 Wolterstorff가 강조한 학문의 궁극적 가치와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심각한 도전이자 쉽게 넘기 어려운 산으로 남아 있다.

는 거부하기 어렵다.

한편 월터스토프가 주장하는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란 ‘사회적 헌신’이 기독교학문의 기조로 자리 잡을 때 빈곤이나 개인과 국가 간의 불평등, 압제, 폭력과 이로 인한 약자의 고통과 관련된 연구에 기독교학자가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문으로 이어진다.

기독교학자가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 마르크스적 관점의 분석 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신칼빈주의의 결정적 결함이 바로 자본주의가 세계체제로 바로 자리 잡은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됐다는 월터스토프의 지적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근 근인으로 작용하는 개인이나 사회, 국제간 불공정한 제도, 체제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음에 따라 새롭게 일어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과 투쟁의 처방이 과연 사회분화로 해결될 수 있는냐 하는 것과 학문의 성격을 각 사회영역의 규범을 밝히는 것에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는 월터스토프의 지적은 설득력을 지닌다. 사회분화를 통한 소위 각 영역의 규범을 찾아 이를 통해 사회분화와 문화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작업(신칼빈주의의 용어로는 ‘disclosure’)은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의 배분과 이를 둘러싼 투쟁과 갈등의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IV. 맺어

월터스토프가 이 책(Walterstorff, 1981)을 저술할 당시에 남기는 독재와 소



득불균형에 의한 압제와 빈곤의 절규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국가간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어떤가? 소득불균형은 국제적으로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된 90년대에 들어 가장 큰 경제·사회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이다. 선진국이 갖는 기술력과 지식정보의 우위와 거대한 자본과 금융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적대적 관계는 세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성경을 믿는 학자로서 뿐 아니라 이러한 현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도 기독교학문의 실천적 동기를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의와 평강의 실현'이란 '사회적 헌신'을 학문의 지배 동기로 적합하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지배동기가 기독교학문 작업의 충분조건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 이 같은 동기를 갖는 것과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각 분야의 기존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필수적이며 각 분야의 빠르게 축적되는 연구결과를 소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자가 어떤 '사회적 헌신'을 가지고 있는냐는 연구과제의 선택은 물론 학문의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문이 과연 실천지향적(praxis-oriented)이어야 하는 것과 실천지향적 학문의 근본동기와 기초는 무엇이 되어 하는가에 관해 윌터스토프가 제기한 문제와 그의 통찰력은 현대 기독교학자들이 여전히 되새길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강영안 (2001), “도이어베르트와 기독교철학”, 미발표자료 (기독교학문연구소)
- Gou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A Diagnosis of Western Society*, Grand Rapids, MI: Eerdmans.
- Hobsbawm, Eric (1962),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Vintage Books USA.
- \_\_\_\_\_ (1983), *The Age of Capital, 1848-1875*, Vintage Books USA.
- \_\_\_\_\_ (1989), *The Age of Empire, 1875-1914*, Vintage Books USA.
- Kalsbeek, L. (1975), *Contours of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Toronto: Wedge Publishing Company.
- Kuyper, Abraham (1943),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 Eerdmans.
- Meeter, H. Henry (1965),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5th ed., revised, Grand Rapids, Michigan: Guardian Press.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 Wolterstorff, Nicholas (1981),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 Eerdmans.

**ABSTRACT**

**Practical Motive of Christian Studies as a Dominant  
Interest: Focused on Argument of Wolterstorff**

Se-Yeol Cheong

The practical motives of a study have great impacts on the choice of research topics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studi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actical motive of christian studies, focused on argument of Wolterstorff. First, it is criticized that Neo-Calvinism lost the practical motive and exposed the limitations of Postmodernism because it devoted itself to find the norm of each field and the specialization of the society, and it overlooked the problem of present oppression and inequality and failed to serve the humankind. As an alternative, Wolterstorff presents the coexistence of justice and peace for the practical motive of christian studies. This 'social devotion' is consistent with the main point of Bible and makes it possible for practical studies.

**Key words:** Wolterstorff, neo-Calvinism, practical motive,  
Christian studies